한국사 경찰 1차 시험 총평(2018년 3월 24일 시행)

■ 역시 이번 2018년 1차 시험에도 평상시에 자주 등장하는 틀린 개수와 옳은 개수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앞으로 경찰문제에도 개수문제는 빠질것으로 생각되며,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았을 때 비교적 자주 접하던 문제가 출제되어 쉬운 편이라 생각된다.

■ 출제 내용 분석 : 다음 점수 구간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만한 문제 기준

* 최상(90~100) / * 상(80~90) / * 중(60~80) / * 하(60점 이하)

문항	난이도	주제	문항	난이도	주제
01	하	청동기시대	11	중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02	하	여러나라의 성장(옥저, 동예)	12	중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03	중	고대국가의 발전	13	중	임진왜란 시기 순
04	중	신라 말기의 사회모습	14	상	조선후기의 호락논쟁
05	상	고려 성종 시기의 사실(최승로의 시무28조)	15	중	인조 때의 사건 전개 순
06	중	고려의 지방 행정조직	16	하	홍선대원군의 정책
07	중	고려역사의 시기 순	17	중	대한제국 설립과 대한국국제
08	중	고려의 문화, 예술	18	중	애국계몽운동 단체
09	중	고려의 대외항쟁	19	중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10	최상	최영(호기가)	20	중	해방전후 시기 순

■ 세부내용 분석

가장 까다로웠을 문제는 10번의 <호기가>를 주고 최영 장군을 묻는 문제였을 것이다. 사실 최영장군만 알았다더라면 선택지의 정답을 찾는건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주어진 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평상시 자주 보았던 내용이 아니어서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5번 문항의 성종 문제는 선택지 3번을 문산계, 무산계로 표현해 자칫 문종 때의 경정전시과가 아닌가 착각했을 수 있는 우려로 상 난이도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선지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생각된다. 14번 문항의 호락논쟁 또한 정답이 되는 2번 선지의 내용은 설사 잘 몰랐다 하더라도 나머지 선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전국의 경찰 수험생 여러분 시험 치루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예비 경찰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문항 및 자세한 해설은 김석훈 한국사 카페의 해설지, 이그잼 경찰학원의 해설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정, 간절함, 진심, 경찰 한국사 김석훈 선생

1. 정답 ④

① 청동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무문 토기) 계열의 토기들이 주로 제작되었는데, 미송리식 토기, 팽이형 토기, 붉은 간 토기 등이 대표적이다.

②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 한반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청동기 생산이 이루어져 비파형 동검은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바뀌었다.

③ 청동기 시대에는 농업기술의 발달로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잉여생산물이 등장하였다. 잉여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와 계급의 분화가 나타났다.

【오답풀이】

④ 청동기 시대에는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2. 정답 ④

(가)는 옥저, (나)는 동예이다.

④ 동예에서는 다른 씨족과 혼인하는 족외혼과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 말, 노비 등으로 보상하는 책화의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신석기 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오답풀이】

① 고구려의 혼인 풍습인 서옥제에 대한 설명이다.

②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귀족 합의제도이다.

③ 족장들이 저마다 사출도라 불리는 행정구역을 다스린 것은 부여이다.

3. 정답 ③

(가) 국내성 : 고구려는 2대 유리왕 때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나) 고국천왕 : 2세기 후반 고국천왕은 부족적 성격의 5부를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하였다.

(다) 고이왕 : 백제는 3세기 중엽 고이왕 때 6좌평, 16관등제를 정비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는 등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라) 내물왕 : 신라는 4세기 후반 내물왕 때에 이르러 박, 석, 김씨가 돌아가며 왕위를 세습하던 것에서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을 확립하고, 왕호도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꾸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또한 신라의 모태가 된 사로 6촌이 6부로 개편된 것도 이 시기이다.

4. 정답 ②

① 신라는 780년 해공왕이 김지정의 난 중에 피살된 이후, 멸망할 때까지 15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진골 귀족 간의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었다. 이를 신라 하대라 부른다.

③ 진성여왕 때에는 농민에 대한 수탈이 심화되면서 원종과 애노의 난(889), 적고적의 난(896) 등의 농민 반란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④ 892년 무진주(광주)를 장악한 견훤은 900년 완산주(전주)를 점령하고 후백제를 건국하였고, 궁예는 901년 송악(개성)에 도읍하여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오답풀이】

② 신라 말, 정치적 출세에 제약받은 6두품 지식인들은 당으로 유학을 떠나 빈공과에 응시하여 급제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을 도당 유학생이라 부른다. 도당 유학생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신라 말 3최라 불리는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가 있다. 이중 최치원은 당에서 귀국한 후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의 개혁안을 올리는 등 기울어져 가는 신라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진골 귀족들의 반대와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맞물리면서 개혁은 좌절되었다.

5. 정답 ③

다음 개혁안은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 개혁안 중의 일부이다.

③ 성종 때에는 당, 송의 제도를 참조하여 2성 6부제의 중앙관제를 마련하고,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등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통치질서 정비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중앙의 문무 관료에게는 문산계를, 지방의 호족에게는 무산계를 부여하는 등 관료와 호족의 서열화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특히 호족의 경우 향리로 편제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오답풀이】

- ①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청천강에서 영흥만을 잇는 선까지 영토를 확대한 것은 태조 때이다.
- ② 자색(紫色), 단색(丹色), 비색(緋色), 녹색(綠色)의 4색 공복을 제정한 것은 광종 때이다.
- ④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법안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등 교종과 선종의 종파를 정리한 것은 광종 때이다.

6. 정답 ③

- ①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은 현종 때 전국을 5도와 양계, 경기로 나누고 그 아래에 3경, 4도호부 8목의 계수관을 비롯하여 군, 현, 진 등을 설치하면서 크게 정비되었다.
- ② 경(京)은 중앙과 지방의 군현을 잇는 중간 역할을 담당한 기구(계수관)의 하나이다. 보통 고려시대의 3경은 개경(개성), 서경(평양), 동경(경주)을 의미하지만, 문종 이후에는 동경이 남경(서울)으로 대체되면서 개경, 서경, 남경을 의미하게 된다. 이중 수도인 개경을 제외한 3경이라고 하면 서경, 동경, 남경을 뜻한다.
- ④ 국경 시대에는 북계와 동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였고, 양계 아래에는 방어군과 진을 설치하여 각각 방어사와 진장 등을 파견하였는데, 방어군과 진은 일반 군, 현과 달리 군사적인 특수행정구역이었다.

【오답풀이】

- ③ 향리 자제를 개경에 강제로 이주시켜 지방 일의 자문에 응하게 한 것은 태조 때 시행된 기인 제도이다. 상수리 제도는 그 성격이 기인 제도와 유사하지만 신라 때 시행된 제도이다.

7. 정답 ①

- ㉠ 강화도에서 몽골에 저항하던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한 것은 1270년이다. ㉡ 몽골의 2차 침입 때 불탄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새로운 대장경을 제작하고자 강화도와 진주에 대장도감을 설치한 것은 1236년이며, 대장경이 완성된 것은 1251년이다. ㉢ 『상정고금예문』은 인종 때 최윤의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의례서로, 이것이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은 강화 천도 시기인 1234년부터 1241년 사이로 추정된다. ㉣ 일연이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와 전래 기록을 수록한 역사서인 『삼국유사』를 저술한 것은 충렬왕 때인 1281년이다. 이를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 ㉠ ㉢ → ㉡ → ㉣ → ㉣이다.

8. 정답 ②

- ①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크게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으로 나뉜다. 주심포 양식은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자리잡은 반면, 다포 양식은 기둥 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짜여져 있는 양식이다. 전자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면, 후자를 대표하는 건물로는 성불사 응진전, 석왕사 응진전 등이 있다.
- ③ 서예에서는 고려 전기에는 구양순체와 왕희지체가 주류를 이룬 반면, 후기에는 조맹부의 송설체가 유행하였다.
- ④ 고려 후기의 불화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등이 많이 그려졌다.

【오답풀이】

- ②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관촉사 은진미륵)은 고려 초기 지방 문화의 발달을 상징하는 거대 불상으로, 몸체에 비해 머리가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 등 균형감과 비례감이 전혀 맞지 않는다.

9. 정답 ④

- ① 고려는 1104년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하였고, 1107년 여진 정벌을 단행하여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 ②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9층탑, 부인사 초조대장경 등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 ③ 개경 환도 이후에도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거점을 옮기며 대몽항쟁을 지속하였다.

【오답풀이】

- ④ 공민왕이 복주(안동)까지 피난한 것은 홍건적의 침입 때이다.

10. 정답 ①

다음은 고려 말 무신인 최영이 쓴 시조인 호기가이다.

- ① 최영은 1376년(우왕 2) 7월 홍산(지금의 충남 부여) 일대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는데, 이를 홍산대첩이라고 부른다.

【오답풀이】

- ② 화통도감에서 각종 화기를 제조하여 왜구 격퇴에 사용한 인물은 최무선이다.
- ③ 황산에서 왜장 이지발도를 사살하는 등 왜구를 섬멸한 인물은 이성계이다.
- ④ 관음포 앞바다에서 왜선 120여 척을 격침시키는 전공을 세운 인물은 정지이다.

11. 정답 ②

- ① 성종 때에는 관료의 과도한 수조권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관청에서 수조권을 대행하는 제도인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다.
- ③ 수신전, 홀양전 등 세습되는 토지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 때인 1466년에는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 ④ 과전법 체제 하에서 관료가 사망하면, 관료가 받았던 과전을 미망인에게 수신전, 어린 자녀에게 홀양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였다.

【오답풀이】

- ② 명종 때 직전법의 폐지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 되면서 소작농의 수가 증가하였다.

12. 정답 ④

- ① 문과는 복사에서 33명을 선발한 후, 다시 전시를 보아 등수를 매겼다.
- ② 문과의 최종 합격자는 성적에 따라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나뉘었는데, 이중 갑과 1등을 장원이라 하여 종6품의 품계를 수여하였고, 갑과 2등과 3등은 각각 방안과 탐화라 하여 정7품, 을과 7명은 정8품, 병과 23명은 정9품의 품계를 수여하였다.
- ③ 무과는 문과와 달리 대과와 소과의 구별은 없었으나,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문과와 마찬가지로였다. 다만 전시에서 갑·을·병으로 등수를 매기긴 하였으나 장원을 따로 뽑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 ④ 소과의 경우 초시는 각 도의 인구 비율로 배분한 반면, 복시는 성적 순으로 선발하였다.

13. 정답 ②

- ㉠ 신립이 충주 탄금대에서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한 것은 1592년 4월 28일이다. ㉡ 부산진 첨사 정발은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왜군이 상륙하자 이를 맞아 항전하였으나, 4월 14일 성이 함락되면서 전사하였다. ㉢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이끈 조선 수군이 옥포에서 최초의 승전을 거둔 것은 1592년 5월 7일이다. ㉣ 왜군이 평양성을 점령한 것은 1592년 7월 22일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 ㉠ → ㉢ → ㉣이다.

14. 정답 ②

- ①, ③ 호락 논쟁에서 한원진 등 충청도 노론은 인성과 물성을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 이론을 주장한 반면, 이간 등 서울 지역 노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 동론을 주장하였다.
- ④ 낙론의 주장은 북학파의 과학기술 존중 및 이용후생사상으로 이어졌으며, 19세기 후반 개화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오답풀이】

- ② 호론의 인물성 이론은 더 나아가서 성인과 범부(일반인) 또한 그 본성이 같을 수 없다는 성범심 이론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청나라의 존재를 여전히 오랑캐로 한정하는 명분론적 입장을 지니게 된다. 그해 반해, 낙론은 성범심 동론을 통해 청을 중화(中華)로 인정하자는 입장을 드러냈다.

15. 정답 ②

- ㉠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 삼학사(三學士)가 청에 끌려가 처형당한 것은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인 1637년이다. ㉡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인조반정 이듬해인 1624년이다. ㉢ 후금 태종이 정묘호란을 일으킨 것은 1627년이다. ㉣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한 것은 1636년이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 ㉠ → ㉢ → ㉣ → ㉤이다.

16. 정답 ④

다음은 황현의 『매천야록』에 실린 흥선대원군의 발언이다.

- ① 흥선대원군은 노론 세력의 정신적 지주인 만동묘를 철폐하는 한편, 사액서원 47개소를 제외한 모든 서원을 철폐하였다.

② 흥선대원군은 비변사의 등장 이후 유명무실화 된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정치를 관장하게 하고, 삼군부를 설치하여 비변사의 본래 목적인 군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③ 흥선대원군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방치되던 경복궁을 재건하고 육조거리를 조성하는 등 한양의 도시 구조를 복원하였다.

【오답풀이】

④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 비변사를 축소, 폐지하였다.

17. 정답 ③

③ 대한민국 국제 제5조에는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의 통수권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대한민국 국제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통치권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았고, 국가 권력의 주체를 오로지 황제에게 둬으로써 전제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다.

②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물던 고종은 1년여 만인 1897년 2월,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④ 대한민국 국제에서는 의회 설립이나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같은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대로 된 근대적 헌법이라 볼 수 없다.

18. 정답 ③

다음 사료에 나온 단체는 대한자강회이다. 대한자강회가 설립된 것은 1906년 4월이다.

㉠ 헌정연구회는 1905년 5월, 이준·양한묵 등이 조직한 단체로 대한자강회의 전신에 해당한다.

㉡ 보안회는 1904년 7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항하기 위해 서울에서 조직된 항일단체이다.

【오답풀이】

㉢ 대한협회는 1907년 11월, 고종 퇴위에 반대하다 해산당한 대한자강회를 재정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 대한자강회는 1906년 4월, 윤효정·장지연 등에 의해 설립된 애국계몽단체로 사료에 나온 단체이다.

19. 정답 ②

① 일제는 식민통치 자금 마련을 위해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③ 일제는 민족 기업을 탄압하고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1910년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④ 일제는 1911년 산림령과 어업령, 1915년 광업령 등을 공포하여 광산, 어장, 산림 등의 자원에 대해서도 수탈을 강화하였다.

【오답풀이】

② 총독부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은 1919년 3·1 운동 이전까지는 한 번도 개최된 바 없다.

20. 정답 ②

㉠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 것은 1943년 11월에 개최된 카이로 회담이다. ㉡ 국내에서 여운형 등에 의해 비밀결사 조직인 조선 건국 동맹이 조직된 것은 1944년 8월이다. ㉢ 한국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를 결정한 것은 1945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 3상 회의이다. ㉣ 한국 독립 문제를 재확인 한 것은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이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② ㉠ → ㉡ → ㉢ → ㉣ 이다.